

한국무속학 제44집(2022)

함흥 <창세가>에 보이는 성속(聖俗)의 넘나듦

신연우*

[요약]

본고는 함흥 <창세가>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하여 전체 신화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신화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보다 보편적인 신화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흔히 창세가의 본령을 이루는 미륵과 세계의 기원, 석가와외의 인세차지 경쟁이 논의의 중점을 이루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고려하면 이 신화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세상을 마련해준 미륵이 사악한 석가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이 신화를 미륵이 떠난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신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서양 기독교의 창세기 <에덴동산> 이야기의 주제와 동일하다. 그것은 (1) 성스러운 공간인 미륵의 세상/ 에덴동산 (2) 사악한 석가/ 뱀의 유혹 (3) 미륵이 떠난 세계/ 신으로부터 에덴에서 추방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聖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俗의 세계로 추방되는 구성으로 된 이야기이다. 둘 다 인간은 성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속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 드러나는 신화이다.

결말은 삼천 중 중에 둘이 화식을 거부하고 성인 되겠다고 떠나는 것이다. 이 둘은 다시 미륵의 세계, 성스러운 세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성의 세계는 사실은 인간이 살 수는 없다.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세계에서 살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중처럼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세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명의 중이 상징한다.

인간은 동물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동물의 한 중이다. 우리는 언제나 동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저 하늘, 저 성의 세계에 대한 지향을 망각하지 않아야 동물과 신의 중간 상태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일상을 벗어나 산으로 가서 하루를 자연과 함께 보내는 화전놀이, 미륵이 알려준 성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계와 미륵이 떠나버린 속의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속의 세계를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만 현실만으로는 삶의 무의미함에 빠지고 만다. 화전놀이는 성의 세계를 환기하고 우리가 성의 세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례의 기능을 한다. 성과 속이 대조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속의 세계 속에 성의 기능 성은 열려 있으며 이 성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신화임을 해명했다.

주제어 : 함흥, 창세기, 신화, 성, 속, 창세기

I. 머리말

손진태 선생이 1923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김쌍돌이 무녀에게서 채록한 <창세기>¹⁾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이다. 채록자가 “조선적 색채를 가진 유일한 창조설화”라고까지 말한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으로 전하는 건국신화의 너머에 우리 식의 창세신화가 무속의 전통 속에 연면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었음을 증언한 자료이다. 미륵과 석가라는 불교적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불교 이전의 거인 전승에 맥이 닿아 있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김현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초로 채록된 창세신화일 뿐 아니라 천지개벽과 인간창조에 대한 독특한 내용이 들어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²⁾

손진태가 말한대로, “문맥의 불명확한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은 신화에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신화에서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쉽지 않다. 석가가 노루를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놓았는데 삼천 중 가운데 둘이 고기를 먹지 않았고, 죽어서는 바위와 소나무가 되었으며, “지금 사람들이 삼사월이 다가오면 상항미 노구메 꽃전놀이 화전놀이”로 맺는 결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1) 손진태 편, 『朝鮮神歌遺篇』(동경 향토연구사 간, 소화5년(1930)); 박이정, 2012. 김종근 외 주해, <창세기>, 『조선신가유편』(박이정, 2012), 17~26쪽.

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228~229쪽.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세 편 있다. 심재숙은 미륵을 창조 여신격으로 보고 석가를 창조 여신을 살해한 사냥과 육식의 남신으로 보았다. 석가의 세계에서, “창조 여신 미륵이 물러났어도 창조 여신의 원리를 지향하고 원망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후반부를 해석했다.³⁾ 그러나 여성은 생명 남성은 살해라는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여성은 사냥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남녀 모두를 포함한 사람 일반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오세정은 미륵이 창조한 남녀와 대조적으로 석가 세계의 인간이 속임수와 火食으로 대표되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간의 타락이며 신 인간 자연의 관계체계에서의 이탈, 고립이라고 보았다. 신화의 마지막 부분은 ‘남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자연과의 소통, 관계맺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⁴⁾ 이 연구는 인간을 미륵이 창조한 것으로 본다든지 인간의 타락을 강하게 부각시켜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석가의 세계 곧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홍윤은 생태주의적 연구를 선보였다. 미륵의 생태적 질서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 주체적 관계를 맺는 유기체적 질서이고, 석가가 상징하는 파괴적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유기체적 생태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유기체적 생태의식이라고 하였지만 좀 단순하게 선악 이분화의 관점을 보인다. 생태계 회복은 신화를 재해석하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당위로 제시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이들이 그런 점을 의식하고 신화를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신화의 기능을 보다 면밀히 규명한 뒤에 이런 연구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심재숙, 『<창세가>에 나타난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과 ‘미륵-석가’ 대결의 의미』, 『돈암어문학』 33집(돈암어문학회, 2018), 196쪽, 202쪽.

4) 오세정, 『한국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신, 자연, 인간의 관계』, 『인간연구』 33(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7), 66쪽, 68쪽.

5) 조홍윤, 『<창세가>의 성인(聖人) 각성 화소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65(겨레어문학회, 2020), 54쪽, 58쪽.

이 밖에 <창세가> 전반을 언급한 연구들도 있다. 최원오는 <창세가>와 북미 나바호 인디언의 창세신화를 비교하여 창조 조판 발견이라는 창세의 원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⁶⁾ 오세정은 <창세가>의 대립 구조 분석을 통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와 인간 세계가 타락했으며 속화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⁷⁾ 허정식은 <창세가>와 제주도의 <천지왕본পুর이>를 비교하면서 인간 창조와 인세 불행의 동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는 정도에 멈추었다.⁸⁾

본고는 선행 연구를 이어서, 특히 <창세가>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하여 전체 신화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신화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보다 보편적인 신화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흔히 창세가의 본령을 이루는 미륵과 세계의 기원, 석가와의 인세차지 경쟁이 논의의 중점을 이루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고려하면 이 신화의 의미가 더욱 새로운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창세가> 전문의 구성 양상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II. <창세가>의 구성 양상

<창세가>의 『조선신가유편』에서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지만,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미륵의 탄생과 그가 한 일을 제시한다.

미륵은 하늘과 땅이 생기면서 서로 붙어 있을 때 함께 생겨나서 하늘 땅을 가르고 두 개씩 있던 日月을 조정했다. 자연물로 옷을 지어 입고 생식을 했다. 아직

6) 최원오, 『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 『구비문학연구』 25(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1~29쪽.

7) 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4쪽.

8) 허정식, 『한국의 창조신화 연구』(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50쪽.

인공이 없는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풀개구리, 생쥐를 통해 물과 불의 근원을 찾아주고, 해와 달에 축수하여 금쟁반 은쟁반의 별레로 출현한 인간의 첫모습을 그렸다.

(2) 석가가 나타나 미륵과 인세차지 경쟁을 벌인다.

제주도 것을 포함해 우리 창세신화 뿐 아니라 동북아 창세신화 널리 사용된 삽화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금병 은병의 줄 끊어지지 않게 하기, 동지채와 입춘채의 대결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꽃피우기 경쟁에서 속임수로 승리한 석가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기생, 역적, 무당, 백정 등이 나서 어지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3) 석가가 삼천 중을 데리고 노루 사냥을 한다.

미륵이 사라지고 없는 세상을 석가가 다스리게 되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간략하게만 나타난다. 화소가 단순하다. 석가가 중들을 데리고 산 중에 들어가니 노루 사슴이 있어서 노루를 잡았다.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두 명이 일어나서 먹기를 거부하였다.

삼천 중 가운데 둘이 일어나며
 고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나는 성인 되겠다고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그 중 둘이 죽어 산마다 바위 되고
 산마다 소나무 되고
 지금 사람들이 삼사월이 다가오면
 상항피 노구메
 꽃전놀이 화전놀이⁹⁾

이렇게 갑자기 무가가 종결되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9) 손진태 편, <창세가> 25~26쪽.

되어 있다. 『조선신가유편』을 재간행한 건국대 팀은 주석에서는 “여기서는 화전놀이의 기원이 육식을 거부하고 성인이 된 두 사람을 기리는 것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가령 같은 함흥의 무녀 강춘옥의 서사무가 〈생긔〉에서, 창세 이후에 칠성신앙의 기원, 화장법의 기원 등으로 이어나는 사례를 참고하면¹⁰⁾ 이 부분이 화전놀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현선은 이 자료의 신화소를 “A. 천지개벽과 천지창조 B. 일월의 조정과 갖가지 신앙 C. 미륵님의 거인적 면모 D. 물과 불의 근원 E. 인간의 창조 F. 인세차지의 경쟁 G.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환 H. 화식의 거절과 영생의 획득”으로 정리하였다.¹¹⁾ 이로써 이 신화의 열개는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연결 구조를 보여주는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김쌍돌이의 이 무가는 부분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특히 후반부 화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해명에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부분적 설명에 그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면서 의미를 찾기에 더 좋은 자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무녀 자신은 그런 의미를 의식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창세신화로 이해해도 좋을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기 위해 이 신화의 전체적인 대립 구도를 다시 드러내 보자. 이 신화는 물론 미륵과 석가의 대립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륵과 석가가 인간 세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의 대립도 주목할만 하다. 미륵과 대립되는 석가의 세계를 나타내는 구절은 짧게 약화되어 있지만 의미가 크다.

미륵님이 그 때에 도망하여
 석가님이 중들을 데리고 찾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니 노루사슴이 있구나
 그 노루를 잡아내어

1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250쪽.

11)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228쪽.

그 고기를 삼천 꼬치를 꿰어서
 이 산속의 늙은 나무를 꺾어내어
 그 고기를 구워 먹으니 (25쪽)

미륵이 이 세상을 석가에게 양도하면서 내린 저주처럼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 삼천중에 천 건달이 생겨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의 특징은 노루사슴을 사냥해서 나무를 꺾어서 불에 구워먹는다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짐승을 사냥하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먹는다는 것은 미륵 시절에는 없던 일이다.

미륵님의 시절에는, 생식을 잡수시어
 불 아니 넣고, 생 낱알을 잡수시어
 미륵님은 섬들이로 잡수시어
 말들이로 잡수시고, 이렇게는 못할러라 (19쪽)

미륵님 세월에는
 섬들이, 말들이 잡수시고
 인간세상이 태평하고 (22쪽)

미륵님의 세상에는 생식을 하고 인간 세상이 태평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생식은 태평한 세상의 상징일 것으로 생각된다. 짐승을 죽여서 그 고기를 구워먹는 살생의 상징과 크게 대비된다. 석가의 세계는 산의 나무를 꺾어 불을 때서,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구워먹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 대부분은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고 나무를 꺾어 불을 때서 요리를 한다. 즉 석가의 세계에 산다. 생식을 하거나 채식으로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채식은 평화의 상징일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여서 만든 음식을 먹어야 사는 모순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¹²⁾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미륵이 석가에게 이 세계를 양도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미륵이 떠난 세계는 살생과 火食과 자연파괴가 자행된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일상의 세계이고 종교적 용어로 하면 俗의 세계이다. 미륵의 세계는 이에 대립적으로 거룩한 세계, 聖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화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속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미륵이 없는 세계, 성스러움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사냥을 하고 나무를 꺾고 불을 사용하여 먹고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신화는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야기를 통해서 성과 속의 대립을 강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속을 넘어서 성의 세계를 어떻게 지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성과 속을 대립적으로 배치했다고 이해된다. 도정일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이런저런 창조신화를 만든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것과 통한다.’¹³⁾

이렇게 보면 이 신화의 전체 구도는 앞의 (1)단락 미륵 세계의 聖과 (3)단락 석가 세계의 俗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단락은 그 성에서 속으로의 변환과정을 보여준다. 그 변환이 모순적이면서도 필연적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륵과 석가의 첫 번째 내기는 동해바다 속에 금병 은병 줄을 달아 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미륵의 줄은 끊어지지 않고 석가의 줄은 끊어져서 석가가 내기에 졌다. 두 번째 내기는 성천강을 여름에 얼어붙게 하는 것이었다. 미륵은 강이 얼어붙게 했고 석가는 실패했다. 마지막 내기는 유명한 꽃피우기 경쟁이다. 석가는 속임수를 써서 미륵의 번성한 꽃을 자기 것으로 훔쳤다. 이 “더럽고 축축한” 짓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렇게 속임수와 도둑질과 역적과 무당 등이 만연한 더러운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12) Campbell, J. John, *The Power of Myth*.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고려원, 1992), 152쪽.

13) 도정일 최재천, 『대담』(휴머니스트, 2005), 231쪽.

문맥에서 석가는 분명히 내기에서 두 번이나 져고 세 번째는 속임수를 썼으니 무능하고 사악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선학들이 지적했듯이¹⁴⁾ 석가의 패배는 인간에게는 필수적이었다. 동해바다에서 병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물이 흐름, 비가 내림을 암시한다. 미륵은 내기에는 이겼지만 인간에게는 병의 줄이 끊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이 절실하다. 두 번째 내기에서도 강물은 녹아 흘러야 인간이 물을 이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내기에서는 이겼지만 미륵의 강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¹⁵⁾ 세 번째 꽃피우기에서 석가의 행동은 자연의 꽃을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의 꽃이나 열매가 아니라 인간에 맞게 변형된 식물이다. 쌀이나 옥수수는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필요에 맞게 변형된 결과물이다. 개나 말이나 돼지 같은 짐승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맞게 변형되어 있다. 자연을 변형해서 인간의 필요에 맞게 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해온 일을 보여준다.

미륵은 선하고 석가는 야비하고 사악하다. 그러나 석가가 한 일이 인간의 생존에는 도움이 된다. 인간은 미륵처럼 순수하고 선하라고 하면서도, 석가처럼 야비하고 사악해서 이렇게 살아남고 번성했다고 할 수 있다. 김쌍들이 <창세기>는 인간 존재의 모순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신화라고 할 것이다.

Ⅲ. 구약성서 <창세기>와의 성속 비교

김쌍들이 <창세기>의 주제가 미륵이 떠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 박종성, 『한국창세사사시 연구』(태학사, 1999), 110쪽; 신태수, 『창세신화의 변이양상과 신화사적 위상』, 『우리말글』 39(우리말글학회, 2007), 180~181쪽.

15)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성스럽기만 한 것은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스러움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쉽다. 순수철학자가 일상 삶에 유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사실은 속의 삶의 이면에서 성스러움은 속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점을 이 신화가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엘리야테가 말한 ‘숨은 신’ 개념과도 유사하다. 신은 세계를 만들고 우주 너머로 숨어버린다. 성스럽기만 한 것은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이 신을 찾게 된다는 역설에 놓인다.

의 문제인 것이 에덴동산 이야기가 신이 떠난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도정일의 지적과 같은 것이라면 두 신화를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 문제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창세기 서두의 <에덴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와 에덴동산의 완전함과 평화로움을 먼저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는 신이 지시하는 대로 선악과 외의 에덴의 모든 과일을 따먹으면서 평화롭게 산다. 이것은 어떠한 악도 없는 신의 세계, 성스러운 동산이다.

이것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신의 저주를 받으며 에덴동산에서 추방된다. 이제 이들은 노동과 출산의 고통 속에서 자기 생존을 이어나가야 한다. 노동과 출산은 인간의 일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역사이다. 이제 신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평화로운 에덴동산에 뱀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신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중간부분이다.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실은 신과 경쟁하고 있다. 인간은 신의 말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경쟁에서 뱀이 승리함으로써 인간 부부는 에덴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역시 세 단락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성스러운 공간인 에덴동산 (2) 뱀의 유혹 (3) 에덴동산에서 추방. 다시 말하면 聖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俗의 세계로 추방되는 구성으로 된 이야기이다.¹⁶⁾ 그런데 이 신화 역시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나와서 신이 아닌 자신의 삶을 운영해야 한다는 결말임을 알 수 있다. 에덴에서만 있다면 평화로울 수는 있겠지만 노동도 출산도 그 의미가 없다.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하지 않아도 되

16) 물론 이 두 신화가 똑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논평자의 지적대로 '신에게 추방되어 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간 것'과 '신이 부재하여(통치하지 않아/ 다른 신이 차지하여) 그 세계의 성격이 바뀐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기에 비교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그 차이보다는, 그 결과로 '그 세계의 성격이 바뀐 것', 즉 창조신이 없는 이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고, 영원히 살기에 후손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노동으로 양식을 마련하고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다. 인간은 여기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떠나온 에덴동산에 대한 향수는 후손에게서도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어야 할 당위로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 신을 더욱 열심히 섬겨야 한다.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중동지역 창세신화의 일반적 주제를 공유한다.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신의 세계와 추방된 인간의 세계의 엄격한 분리, 차별성이다.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는 뚜렷이 나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에 같은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부각시킬만 하다. <창세가>에서 인간은 미륵 없는 세상에서 석가처럼 속임수와 살생으로 살아가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면 삶은 허무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야비하고 사악한 행위로 생존만을 구가하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된다. <창세가>의 (3)단락의 뒷부분은 이 점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고 있다.

(3)단락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내용은 석가가 산속에 들어가서 노루 사슴을 잡아 불에 구워먹는다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삼천 중들 중에서 두 명이 그 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 바위와 나무가 되었으며 지금 사람들은 화전놀이에서 이들을 기린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속의 세계를 그리지만 뒤에서 “나는 성인 되겠다고,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한 중들은 미륵의 후예로 성스러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사람들은 봄에 꽃놀이를 가서 상향미 노구메로 이들을 기린다고 했다. 상향미, 노구메는 산천의 신령에게 올리는 제수쌀과 밥이다.

이는 속세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신령을 기리고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석가의 세계를 살면서 미륵의 세계를 기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고 이신화는 말한다.

석가의 세계만이라면 이 세상은 비열하고 가혹하다. 자기가 먹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불을 때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니 이 신화에서는 삼천 중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고 말한다. 그 중에 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고 산으로 들어가 바위와 나무가 되었다. 우리로서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말이다. 미륵의 세계만으로 인간 삶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순수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미륵의 순수 자연 세계는 인간이 생겨난 배경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사실은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고 속임수를 써서 생존하고 있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로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놓여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의미와 가치는 살생을 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속이지 않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세계를 추구한다. 생존을 위해 살생과 속임수를 벌이면서도 이와 상반되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순적이다. 그러나 그 점이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이 신화는 말한다.

그러므로 석가의 세계에서 세속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미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내라고 말한다. 자연에서, 봄에 꽃놀이를 하면서, 자연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찾으라고 한다. 이 신화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리가 속의 세계를 살지만 그 중에서도 성의 세계를 잊지 말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은근한 목소리로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지만 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성스러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것이 당위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점은 다르다. 그것은 “꽃전놀이 화전놀이”의 놀이이다. 놀이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처럼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는 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화전놀이가 갖는 의의를 비정할 수 있다.

무가 맨 마지막에 두 구절 나올 뿐이지만 이 화전놀이는 성과 속을 매개하는 구실을 하는 의미가 있다. 미륵이 제시한 성의 세계와 미륵이 떠나고 없는 속의 세계의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화전놀이는 이 둘을 매개하는 소통, 숭통의 역할을 한다. 속의 세계를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는 화전놀이같은 의례를 통해서 미륵의 성스러운 세계를 맞이들임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놀이는 곳에서 ‘대감놀이, 굿놀이’라고 할 때와 용법이 같다. 단순한 아이들 장난놀이가 아니라 상향미와 노구메를 마련하여 신을 대접하면서 놀려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행위와 참여 속에서 세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성스러운 세계를 느끼는 것은 역으로 세속의 삶도 건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세기 에덴동산 이야기도 신약의 예수 이야기로까지 확대하면 조금 더 유사한 사고를 볼 수 있다. 창세기에서는 나무에 있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의 원죄를 생성했다.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모두 갚았다.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인간의 죄에 관여하는 모습은 뱀과 예수에 공통인 이미지이다. 인간은 나무에 있는 뱀 때문에 성스러운 세계를 잃고 나무의 예수를 통해 성스러움을 되찾는다. 죄와 구원은 모두 나무, 같은 토대에서 마련된다. 죄와 구원은 둘이기만 하지 않다. 인간이 구원을 찾는 것은 죄 속에서이다. 원죄에 기반한 세속의 삶을 살면서 죄를 벗어나는 구원을 찾아야 한다. 죄와 구원은 모두 같은 나무에서 가능하다. 둘은 나뉘어 있으면서도 같은 나무에 있다. 속과 성은 나뉘어 있으면서도 둘이 아니다. 성스러운 것은 세속 가운데에서 찾아야 한다.¹⁷⁾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한다.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가 구속한다. 그러나 이 둘은 나뉘어 있기만 하지 않다. 아담은 뒷날의 예수이기도 하다. 인간은 죄를 짓고 속된 세계에 살지만 언제나 성을 찾고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세속적 삶을 살지만 언제나 성스러움에 다가서고 성스러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신화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함축된 주장이다.

17) 칼 욘은 <욘에의 대답(Answer to Job)>에서 뱀을 야훼의 다른 자아로서 이해하였다고 하는 것도 이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경재, 『자연학적 인간학(과) 증증해석학』(철학과 현실사, 1999), 200쪽.

이러한 생각은 성과 속이 대조적이기는 하지만,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다는 엘리아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성현은 성과 속, 정신과 물질, 영원과 비영원 등의 상반되는 두 본질의 병존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속의 일치는 어떤 성현 속이라도 내포되어 있다. 성현의 변증법, 유형적 물질 속에서의 성의 표명이라는 변증법이 계속 중세 신학처럼 완성된 신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어느 종교에서건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한다.¹⁸⁾

피터 버거도 유사한 지적을 한다. “세속적 존재는 단순히 신성성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성한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모든 현상은 세속적인 것이다.”¹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속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신성성이 결핍된 일상적인 상태일 뿐이다. 그 속에서 성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우리는 일상의 세속적 삶 속에 빠져 있음과 동시에 그 속에서 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러한 노력이 종교라고 보는 것이다.²¹⁾

그런 점에서 함홍의 김쌍돌이 <창세가>는 성과 속의 변증법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 종교적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18) Mircea Eliade,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종교사개론』(까치, 1993), 49쪽.

19) Berger L. Pet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피터 버거,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종로서적, 1982), 36쪽.

20) 신학자인 이경재는 ‘뱀 없는 에덴동산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경재, 앞의 책, 198쪽.

21) 현상 속에서 성과 속은 항상 같이 나타나므로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후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화 즉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덴동산은 성의 공간이기만 하다. 그런 것은 현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겠지만 신의 공간으로서의 에덴은 성의 공간으로만 인식된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속의 세계로 떨어져나간다고 서술된다. 그것은 성과 속이 하나라도 그 둘을 선후로 나눔으로써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성을 다시 되찾는다는 설정은 그 자체가 이야기로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Ricoeur, Paul, *La Symbolique du Mal*. 폴 리코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문학과지성사, 1994), 166쪽 참조.

IV. <창세가>의 신화적 의미망

다른 창세신화도 그렇지만 김쌍돌이 <창세가>도 도둑 무당 역적이 많은 인간 삶의 현실을 설명하지는 이야기이다.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는가, 많은가에 대한 해명을 하지는 신화이다. 그 설명을 하자고 미륵 이야기를 창안했다. 미륵의 세상이 실재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당위론적으로 요청된 세계이다. 이는 창세기 기사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노동으로 살아가며 특히 여성은 출산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현실이 하나님 이 마련한 에덴동산이 뱀에 의해 부정된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격이다.

그런데 <창세가>에서 석가가 차지한 현실 세계는 극히 짧게 언급되고 미륵의 행적은 아주 길게 설명된다. 손진태가 배열한 사실이 전체 164행이다. 이를 1과 2로 나누었는데, 1은 72행까지로 천지개벽과 함께 미륵이 탄생하여 일월조정하고 옷을 지어 입고 불의 근본 물의 근본을 찾는 것까지이다. 73행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유래에 이어 89행에서 석가가 등장한다. 149행까지 내기의 전말이고 결국 시달리던 미륵이 이 세계를 떠난다는 것이 149행의 “미륵님이 그 때에 도망하여”이다.

149행부터 6줄이 바로 석가의 세계이다. 앞에 인용한 바, 석가가 중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노루사슴을 사냥해 불에 구워먹는다는 내용이다. 155행에는 그 중 중 둘이 일어나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석가를 떠나 산에 들어가 바위와 나무가 되었고 사람들이 화선돌이할 때 이들을 기린다는 것으로 맺는다.

석가의 세계는 짐승 사냥과 화식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 점은 현대 진화론의 관점에서도 특기할만하다. 인간이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 종교 전쟁 윤리 등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큰 뇌와 높은 지능이 필요한데, 이 뇌의 발달에 화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불을 이용한 요리, 음식을 익혀먹음으로 인해 소화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세균 질환에서 벗어났으며, 음식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뇌에 공급하게 되었다고 한다.²²⁾ 화식이 인간을 동물로부터 멀리 높이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화식을 강조하면서 이 신화에는 미륵과의 내기에서 석가의 행적이 인간사회의 농경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이나, 미륵이 석가의 세계를 기생, 과부, 역적, 백정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셋은 함께 묶인다. 다시 신화를 따라가보자. 처음에는 미륵의 세계를 길게 노래한다. 미륵의 세계는 자연 상태이다. 거인인 미륵이 칠포로 옷을 해입고 섬들이 말들이로 생식을 한다. 그래도 해와 달을 조정했고 옷을 지어 입을 줄 알고 불과 물의 기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카오스이지만 했던 자연세계를 미륵이 코스모스의 세계로 변형시켰다. 창세신화에서 신들이 하는 일반적인 작업이다.

이 세상을 석가가 뺏자고 달려들었다. 세 차례의 내기와 속임수를 통해서 석가가 세상을 차지했다. 이 속임수의 특징은 농경으로 수렴된다는 점이었다. 농경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을 가공하는 인공의 세계다. 농경에는 문화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 논과 밭은 가짜 자연이다.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내기이고 속임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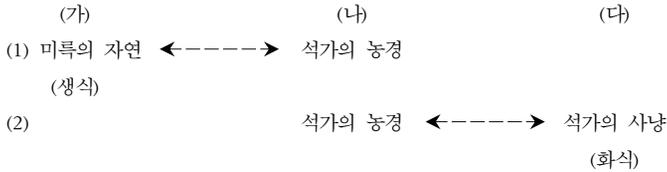
그리고 이 세상은 기생, 무당, 역적, 백정, 과부, 중이 많이 생기는 말세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석가가 자행한 속임수의 결과라고 한다. 미륵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 설명을 듣고 이 신화가 현실을 잘 설명하기 위한 허구로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화적 기능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미륵이 떠나간 뒤에 석가는 중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노루 사슴을 사냥해 불에 구워 먹는다. 석가의 세계가 농경 세계라고 하고 이어서 보여준 석가의 행동은 사냥이어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다. 농경과 사냥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왜 상반되는 둘이 똑같이 석가의 세계인가?

그 점이 바로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임을 이해해야 한다. 신화는 상반되는 것, 모순적인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라고 말하는 서사문학인 것이다. 이 신화에서의 대립을 다시 찾아보자. 첫 번째는 미륵과 석가의 대립이

22) Wrangham, Richard, *Catching Fire: How Cooking Made Us Human*. 리처드 랭엄, 조현욱 옮김, 『요리본능: 불, 요리 그리고 진화』(사이언스북스, 2011), 161~162쪽.

다. 미륵의 자연과 석가의 농경이다. 두 번째는 석가 안에서 농경과 사냥의 대립이다. 이를 도표로 보이자.



신화 전반부에서 미륵이 생식을 하는 인물로 제시되었고, 이에 대결하는 석가의 패배는 결국 인간에게 농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신화 후반부에서 석가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석가는 전반부 미륵과의 관계에서는 농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화 후반부에서는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농경과 사냥이 같은 석가의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상반되는 것을 함께 지니는 것이 바로 석가의 본 모습이며 인간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신화가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농경은 자연과 사냥의 중간항이다. 중간 세계가 바로 세속일 것이다. 그 안에 사는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은 중간 세계를 사는 사람들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기생은 처녀와 기혼녀의 중간, 과부는 망자와 생존자의 중간, 무당은 하늘과 인간의 중간, 역적은 나라를 흔들고 새로 건설하는 중간 과정일 수 있다. 백정은 죽음과 삶의 중간이다. 동물에게는 죽음이고 인간에게는 살이기 때문이다. 함흥의 큰무당 김쌍돌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열거한 것은 아니겠지만 모순 또는 반대되는 것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화의 기본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²³⁾

그러나 이 신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삼천 중 중에 둘이 화식을 거부하

23) 이는 레비스트로스가 대립과 중개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예로 삶(농경) - 사냥 - 죽음(전쟁)의 구도를 보여준 것과 유사하다. 레비스트로스는 사냥이 매개항이었지만 우리 논의에서는 농경이 매개항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신화는 현실의 대립을 매개항을 통해 극복하는 일반적 구조를 보이지만 각 신화에 따라 대립항과 매개항은 다른 항목으로 구성된다.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신화학』, 김병욱 외 엮음, 『문학과 신화』(예림기획, 1998), 276쪽.

고 성인 되겠다고 떠나는 것이다. 이 둘은 다시 미륵의 세계, 성스러운 세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성의 세계는 사실은 인간이 살 수는 없다.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세계에서 살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중처럼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세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명의 중이 상징한다.

인간은 동물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동물의 한 종이다. 우리는 언제고 동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저 하늘, 저 성의 세계에 대한 지향을 망각하지 않아야 동물과 신의 중간 상태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삼천 중에 둘이라는 숫자의 극적인 대비도 의미 있다. 2998명 대 2명의 큰 차이는 다수와 소수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극히 일부는 일상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미륵의 세계를 염원한다. 그들이 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이들 소수를 수용해야 다수의 삶도 동물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화는 우리 삶의 이런 모습을 충실히 재현해서 오래 전승해왔다. 직접적인 논술이나 교훈이 아니라 신화라는 서사 양식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V. 맺음말

본고는 함흥의 창세신화인 <창세가>의 난해한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인간 세상을 마련해준 미륵이 사악한 석가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미륵이 떠난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신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서양 기독교의 창세기 <에덴동산> 이야기의 주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공히 (1) 성스러운 공간인 미륵의 세상/ 에덴동산 (2) 사악한 석가/ 뱀의 유혹 (3) 미륵이 떠난 세계/ 신으로부터 에덴에서 추방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聖

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俗의 세계로 추방되는 구성으로 된 이야기이다. 둘 다 인간은 성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속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 드러나는 신화이다.

이렇게 볼 때 <창세가>의 난해한 결말 ‘화전놀이’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일상을 벗어나 산으로 가서 하루를 자연과 함께 보내는 화전놀이는, 미륵이 알려준 성의 세계와 미륵이 떠나버린 속의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속의 세계를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만 현실만으로는 삶의 무의미함에 빠지고 만다. 화전놀이는 성의 세계를 환기하고 우리가 성의 세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례의 기능을 한다. 성과 속이 대조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의 세계 속에 성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 성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신화임을 해명했다.

이러한 결론은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 큰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전개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적인 소비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다. 도정일이 말한 대로 ‘사회적 이성을 마비시키는 시장전체주의’ 사회에서 ‘기억, 상상력, 이성의 인문적 가치’²⁴⁾로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때 우리 구전 창세신화 속에서, 세속의 성공만이 아니라 성스러움의 가치 또한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민중의 자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성스러움의 인문적 가치에 있음을 이해하게 해준다. 불과 6쪽 정도의 작은 분량이지만 이 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인문적 의미는 거대하다.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함흥 <창세가>의 난해한 결말을 이해하자고 시작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 삶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신화 전체를 다시 해석했다. 무속 신앙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인문적 의의가 있는 해석으로 우리 신화를 다시 조망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세계 신화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 신화의 의의를 찾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도정일,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생각의 나무, 2008), 145쪽, 186쪽.

〈참고문헌〉

- 김종균 외 주해, <창세가>, 『조선신가유편』, 박이정, 2012.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도정일 최재천, 『대답』, 휴머니스트, 2005.
- _____,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생각의 나무, 2008.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손진태 편, 『朝鮮神歌遺篇』, 동경 향토연구사 간, 소화5년(1930), 박이정, 2012.
- 신태수, 『창세신화의 변이양상과 신화사적 위상』,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 심재숙, 『<창세가>에 나타난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과 '미륵-석가' 대결의 의미』, 『돈암어문학』 33집, 돈암어문학회, 2018.
- 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오세정, 『한국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신, 자연, 인간의 관계』, 『인간연구』 33, 카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17.
- 이경재, 『자연학적 인간학(과) 증증해석학』, 철학과 현실사, 1999.
- 조홍윤, 『<창세가>의 성인(聖人) 각성 화소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65, 겨레어문학회, 2020.
- 최원오, 『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 허정식, 『한국의 창조신화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병욱 외 엮음,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 Mircea Eliade,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종교사개론』, 까치, 1993.
- Berger L. Pet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피터 버거,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2.
- Wrangham, Richard, *Catching Fire: How Cooking Made Us Human*. 리처드 랭엄, 조현욱 옮김, 『요리본능』, 불, 요리 그리고 진화』, 사이언스북스, 2011.
- Campbell, J. John, *The Power of Myth*.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고려원, 1992.
- Ricœur, Paul, *La Symbolique du Mal*. 폴 리쾨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the Hamheung Shamanic Genesis <ChangSeGa>

Shin, YeonWoo*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meaning of the entire myth focusing on the last part of Hamheung <Changsega>. Considering this last part, I think the meaning of this myth can be more new.

Maitreya, who prepared the human world, have gone because of the evil Buddha. This myth can be understood as a myth that raises the question of how humans should live in a world where Maitreya has left. This is the same as the story of Genesis' Garden in Western Christianity. It consists of three stages: (1) the world of Maitreya/ Garden of Eden, (2) the temptation of evil sakyamuni/Snake, (3) the world where Maitreya has left/the exile of Eden. In other words, the story consists of losing the world of the sacred and being deported to the world of the profane. Both are myths that reveal that humans know the world of the sacred, but have to live in the world of the inside.

The ending is that two out of three thousand refuse to eat and leave to become saints. The two want to restore Maitreya's world, the holy world again. The two want to restore Maitreya's world, the holy world again. But the world of the sacred can't actually be inhabited by humans in it. Not everyone can live like a monk. But two of them symbolize that the world of the sacred should not be forgotten.

Hwajeon Nori, which goes out of its daily life and goes to the mountains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pend the day with nature,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the world of sacred that Maitreuk taught and the world of profane which Maitre has left. Hwajeon nori serves as a ritual to evoke the world of sacred and confirm ourselves that we live without forgetting the world of sacred. I explained that living without forgetting the value of this sacred is a myth that tells us the way of human life.

Keywords : Hamheung, <ChangSeGa>, Shamanic Genesis, the Sacred, the Profane, <The Genesis>

* 이 논문은 2022년 1월 12일 투고되어 2월 8일 심사가 완료되고
2022년 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